

BTX 수출가격 크게 하락

한국은행, 벤젠 7.0%에 톨루엔 5.2% ... SM도 3.8%

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수출물가가 하락했다.

한국은행이 9월13일 발표한 <8월 수출입물가 동향>에 따르면, 8월 수출물가는 환율하락과 일부 공산품의 중국 수요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9.3% 하락했으며 7월에 비해서도 0.6% 떨어졌다.

수출물가는 2004년 12월 전년동기대비 2.8% 하락한 이후 9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졌는데, 환율하락 효과와 함께 정보기술(IT)품목의 수요부진으로 수출가격이 계속 하락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.

섬유의복 및 가죽제품은 중국제품과의 가격경쟁 격화, 수요부진 및 원화환율 하락으로 Polyester직물, 파일편물 등이 내려 1.5% 하락했다.

화학제품 관련 수출물가 등락률

(단위: %)

구 분	등락률	주요 등락품목 및 등락률
섬유/의복	-1.5	Polyester직물 -0.3, 파일편물 -3.3, 담요 -2.4
석유화학/석유	1.4	휘발유 14.1, Jet유 6.6, 등유 6.6, 나프타 14.3, 방카C유 5.1, 벤젠 -7.0, 톨루엔 -5.2, SM -3.8

석유화학 및 석유제품은 중국의 수요부진 및 원화환율 하락 등으로 벤젠, 톨루엔, SM 등 화학제품은 내린 반면,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, Jet유, 등유, 나프타, 방카C유 등 석유제품이 올라 상승했다.

<화학저널 2005/09/15>